우리 연합회에서는

권인희 회장 '제 7회 WBU 총회' 참가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회 WBU(World Blind Union)총회'. 세계 각국의 시각장애인 지도자들이 모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역량강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과 이낙영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웹 접근성 전문업체 케익소프트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권인희)는 8월 14일 웹 접근성 전문업체인 케익소프트(대표 신원철)와 웹 접근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NEWS ALBUM]

메이크업, 손뜨개 교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문화 활동 일환으로 메이크업 교실과 손뜨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뜨개 교실

메이크업 교실

시각장애 고등학생 미국 어학연수

시각장애 고등학생 10인이 4주 동안 미국 씨애틀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그동안 공부했던 영어를 원어민과 대화하며 실생활에 사용하는 등 큰 경험을 하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2008 시각장애인 조정선수권대회'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8월 18일 미사리 조정경기장(경기도 하남시)에서 '2008 시각장애인 실내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이경숙 회원이 여자 부문 1위를, 박종호 회원이 남자 부문 1위를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속기 훈련

최근 TV 자막방송 및 법원, 회의, 공청회 등에서 컴퓨터속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영상속기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컴퓨터 속기사자격 취득 및 전문적인 속기와 실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활용 및 한글맞춤법 등 다양한 취업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VOICEYE
voiceye.com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하여

최근 노동부는 경증장애인 고용 중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증장애인 고용 중심 체계의 '장애인고용법'으로 개정,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990년 법 제정이래 전부 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개정(안)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명 '더블카운트제'로 불리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입니다. 즉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서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입법되면 계약직 형태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헬스키퍼적 안마사 취업이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의료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의 주된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이 강화되는 공공부문에서도 안마사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안마사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 인격체인 장애인을 2배나 1/2로 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반대 입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인 시각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권 주장과 철학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비록 그 수단과 방법에서 비합리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상실될 가치보다 단 한 사람의 중증장애인이라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철학보다 소중한 참다운 삶의 본질이라고 말입니다.

사진제공 : 푸르메재단